봄바람 나주에 '야구 바람'

세지중 이어 지난해 북초교 야구부 창단
새로운 '야구도시' 만들기 즐거운 구슬땀

나주가 새로운 '야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세지중학교 야구부가, 지난해 2월에는 나주 북초등학교 야구부가 창단되며 나주지역 야구 꿈나무들이 비상의 날개를 펴고 있다. 또 좁은 학교 운동장 대신 맘껏 연습할 수 있는 야구 연습장 등 관련시설도 남평 드들강 저류지와 영산강 저류지 등지에 세워졌다.

나주 북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이 11일 영산강 고수부지 야구 연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나주북초교 아구부원들이 연습을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열린 '제4회 전남협회장기 학생야구대회'에서 우승기를 차지한 세지중 야구부.

실력+인성 스포츠맨십 갖춰
KBO 총재배 '단체 모범상'
전용구장 생기며 활기 넘쳐
"소년체전 전남대표 돼야죠"

◇**나주 야구 꿈나무의 산실**=11일 찾은 나주 영산강 혁신대교 인근 저류지 야구연습장. 나주 북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매서운 영산강 강바람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주 북초교 선수들은 창단 전까지 남평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운동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나주지역 첫 유소년 야구단으로 창단됐던 남평초 야구부는 열악한 입지조건으로 선수 수급이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규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선수 5~6명만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 경기다운 시합을 할 수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운동을 해왔다.

이후 나주북초등학교에 야구부가 창단해 이들을 흡수해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주북초교는 야구부가 창단되기 전까지 면학분위기가 뛰어난 도심속 전원학교로 잘 알려져 있었다.

"전원학교에 야구는 안 된다"며 반대했던 학부모들도 김성한 전 KIA감독과 나주야구협회 등의 권유와 설득에 마음을 돌려 지난해 2월 야구부가 창단됐다. 현재 5~6학년 15명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나주북초교는 야구부 창단정신으로 실력만 높이는 것이 아닌 인성까지 갖춘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뒀다. 그 결과 창단 첫 해인 지난해 7월과 8월에 나주와 포항에서 개최된 2014년 KBO 총재배 전국 유소년·중학 야구대회에서 '단체 모범상'을 수상해 바른 인성과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갖춘 학교로 인정받았다.

안호경 교장은 "지난해 창단 후 예비선수들이 없어 코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보호대를 하고 경기를 계속하는 열정들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운동은 이기는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 학교는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나주북초교 야구부 사령탑을 맡은 김인권 감독은 "남평초에 부임했을 때 선수가 4명이어서 힘든 게 많았다"며 "북초등학교가 창단되면서 선수들이 마음고생을 덜어 다행스럽고 사기도 충만해 올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고향이 나주 금천면으로 1991년 빙그레 이글스 구단에 1지망으로 입단한 나주출신으로는 프로야구 선수 1호이기도 하다.

북초등학교의 올해 목표는 오는 23일 여수에서 전남권 6개팀이 겨루는 시합에서 우승해 전국소년체전에 전남대표로 출전하는 것이다.

추신수 선수를 가장 닮고 싶다는 김현준(6학년) 선수는 "남평초에서 운동할 때에는 선수 구성이 안돼 경기다운 시합을 못했는데 북초등학교로 옮긴 후부터 타지역에 팀들과 시합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나주 첫 중학교 야구부도 창단**=지난 2012년 11월 세지중이 야구부를 창단하면서 나주 첫 중학교 야구부도 생겼다. 어느새 이 야구부의 올해 목표는 오는 8월 나주에서 열리는 KBO총장배에서 우승과 전국소년체전에 전남대표로 나가는 것이 됐다.

세지중 야구부는 창단 초창기에 지도부와 학부모 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용구장에서 맹훈련을 하며 비상을 꿈꾸고 있다. 21명의 선수로 구성된 세지중 야구부는 창단하자마자 전용구장이 없어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겨울을 보냈다.

또 학교운동을 사용할 때는 수업 등 학교 일정에 맞춰가며 연습하는 등 불편함을 겪다가 모교 출신 기업인이 전용구장을 마련해 줘 지금은 마음껏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금성이엔씨 나성범 대표가 옛 세지 서초등학교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청소년 야영장 등으로 사용하다 후배들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세지중 선수들에게 부지를 무상 제공했다.

세지중 야구부가 창단 3년째가 되면서 선수들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주장을 맡고 있는 정건석(3학년·유격수) 선수는 "사촌형인 넥센 서건창 선수의 영향으로 중 2때 야구를 시작했다"면서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선수처럼 세계적인 유격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지중학교 박진석 감독은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을 추렴해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상으로나 선수 보호차원에서 선수들이 25~30명은 있어야 원활히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며 "혁신도시에 학교가 더 들어서면 선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나주시 선정 30억원 확보

나주시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나주시와 광주시 남구가 협력하는 지자체간 연계 모델사업인 '로컬푸드 체계구축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이다.

이번 사업은 도심의 소비지와 지역의 농업을 연결시켜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고, 나주의 농업인들에게는 안전한 농업생산을 돕도록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정비 구축 ▲관계시장 창출 ▲농민가공 활성화 ▲농촌노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핵심주체로 하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로컬푸드 기반구축 사업 ▲생산자들이 직접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농민가공센터 설치 ▲새로운 상품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농민 가공활성화 사업을 벌인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빛가람동 생활불편 조기 해결"
강인규시장 주민과의 대화

나주시가 빛가람동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0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빛가람동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혁신도시내 순환버스 운영과 진·출입구간 교통문제 ▲국제고와 자사고 유치 등의 교육문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비롯한 상가 조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통합 관제센터 운영 등을 건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속도는 빠른데 비해 교육과 교통,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은 상대적으로 지연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유관 기관과 부서간에 협조체제를 강화해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